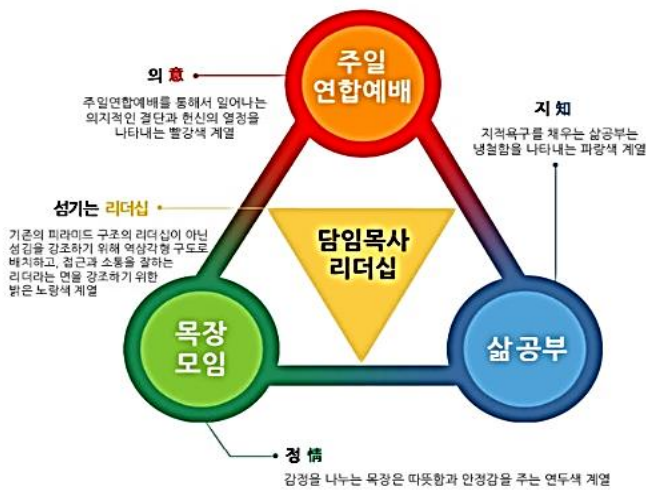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김영란 목사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선을 행하는 믿음 (마 5: 13-16)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선한 능력으로”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마라를 만날 때” (출애굽기 15:22-27)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약 한 두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이집트에 내리신 놀라운 10 가지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너갔고 쫓아 오던 이집트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모두 수장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목이 터져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의 삼일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고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로 목이 터져라 불렀던 그 찬양 소리가 불과 삼일 만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수 없는 마라를 만났을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불과 3 일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이미 경험했다면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단 한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쓴 마라, 어려움과 문제,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약 1-2 시간만 더 걸으면 충분히 마실 샘물이 열 두 곳이나 있는 엘림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인생에 마라를 만났습니까? 마실 수 없는 쓴 물로 인해 목마름,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 원망, 불평, 좌절, 분노,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된 우리의 삶을 마라에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쓴 물이 변해 단물이 될 것입니다. 엘림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실시간 새벽예배 - 주중 새벽 예배 (화-토 6 시) 를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헌금 내역서 - 2020 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장님께 신청해 주십시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2/07	2/14	2/21	2/28
대표기도	김영란	윤완선	유경주	고현명
헌화성도				
봉사당번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1,664.87	

행사 및 모임

3 월	봄 대청소	날짜 미정
	고난주간 특별예배	3 월 30 일-4 월 2 일(화-금)
4 월	부활절 예배	4 월 4 일(주일)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둥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샬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옥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조영문 (Vietnam)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샬롬목장	조현숙/조정옥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영혼이 담긴 감사기도

며칠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맛있는 된장찌개와 반찬이 올려져 있었고 각자 기도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식탁에 앉게 되어 아들 녀석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두 녀석들의 기도가 기도했다기에는 너무나 빠른, 제가 보기에는 눈을 감았다가 바로 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정도 기도한거야?” 그러자 바로 대답했습니다. “Yes I did. 네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같은데 뭐라고 기도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물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짧고 굵게 (!)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축복들이 엄청난 감사의 조건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식사 기도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김이 모락 모락 오르는 따스한 밥과 찌개, 그리고 행복을 주는 맛있는 반찬 하나 하나가 전과는 다르게 귀하고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끼 먹는 음식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허락하심임이 느껴지니 영혼 없는, 형식적인 눈을 감고 머리 숙였다가 순식간에 눈뜨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음식들 씹어서 (!) 먹듯이 감사함의 고백이 나오는 기도로 변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나누었지만 교회에 풍성하게 달린 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을 먹을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밖에 보이는 앙상한 감나무를 보면서 올 가을에 또 다시 풍성하게 열릴 감을 생각하며 군침을 삼킵니다 ^^ 비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고, 따스한 커피를 마시면서도 감사함이 나오고, 새벽에 성도님 한분 한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도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어져 사는 삶이 아닌, 영혼이 없는 기도, 간절함과 감사함이 없는 기도가 아닌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식탁에 오른 음식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축복된 신앙의 삶이겠지요. 예수님께서도 보잘 것 없는 작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5 천명을 먹이고 12 광주리가 남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영혼이 담긴 감사의 기도로 풍성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Paul & Lena	510-872-2212	Paul.lee@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고현명,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둥지목장:이화선목자	살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교회약도

